

## 개그맨 박준형 씨, 학생발명전시회 홍보대사로 위촉

학생들의 발명 생활화 홍보에 앞장



○ 리회는 지난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 센터 19층 중회의실에서, 올해 학생진출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맨 박준형 씨를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재 개그맨, 라디오 DJ, MC, 백제예술대 방송연기과 겸임교수 등 폭 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개그맨 박준형 씨는 앞으로 특허청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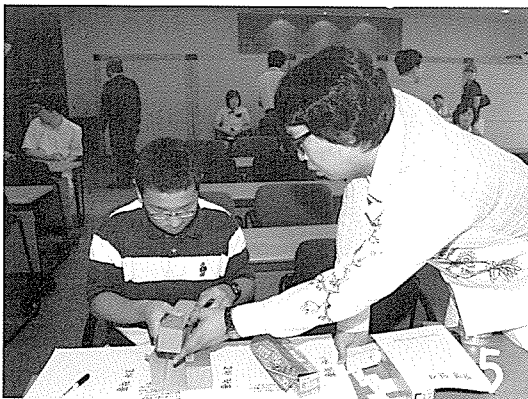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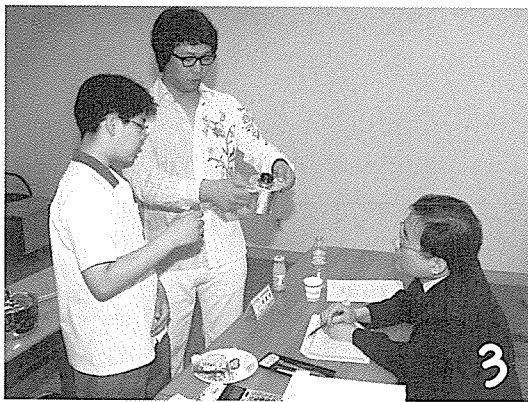
우리회 학생발명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된다.

학생발명 관계자는 “늘 툭툭 튀는 아이디어로 웃음을 주고, 모든 연령층에 친근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박준형 씨가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형 씨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홍보대사로서 학생들의 발명생활화에

1. 우리회 박상원 상근부회장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박준형 씨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개그맨 박준형 씨가 학생들과 파이팅을 하고 있다.
3. 개그맨 박준형 씨가 현물심사 받고 있는 학생의 발명품을 관찰하고 있다.
- 4-6. 개그맨 박준형 씨가 현물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학생들의 발명품을 관찰하고 있다.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에게 발명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제 1기 한 · WIPO 공동교과정 우수학생 증서 수여식

WIPO 여름학교에 한국대표 대학생으로 참가



**서** 강대학교 성채은 학생 등 국내 대학생 4명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권 엘리트로 선발되어 WIPO(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여름학교에 참가했다.

우리회는 지난 6월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제 1기 한 · WIPO 공동교과정 우수학생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선발된 4명의 학생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여름학교 (WIPO Summer School)에 참가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40명의 대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는 WIPO 여름학교에 한국 대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2006년 1학기 특허청과 우리회, 그리고 WIPO가 연세대 등 5개 대학 7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이더닝 교과정 (과정명 DL-KL-101)을 이수한 학생 중, 영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UN 산하 국제기구로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 제정 등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170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하였다.

어 인터뷰와 프레젠테이션, 면접 등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780명 가운데 선발되었다.

서강대학교 성채은, 연세대학교 이길원, 고려대학교 이준수, 부산대학교 백지혜 학생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 뿐만이 아닌, 뛰어난 영어 실력을 겸비한 대학생들로 WIPO 여름학교 참가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등을 특허청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았다.

서강대학교 성채은 학생은 수여식에서 “평소 뉴스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많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우리나라가 국제 지재권 전문

가 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장차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 전문가로 활약하고 싶다”고 밝혔다.

WIPO 여름 학교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ummerSchool)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40명의 지재권 분야에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룹별로 토론, 발표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지식을 2주 동안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세상에 이런일이  
**발명 365**

## 발전기

1821년의 전동기 발명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마이클 패러데이는 발전기를 고안했다. 전자기로부터 기계운동을 발생시키는 대신의 동력을 응용하여 전류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 10년 동안 그는 자석과 긴 전선을 써서 전류를 발생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거듭했다고 한다. 전자기에 의한 최초의 발전기는 원통형코일과 막대자석으로 되어 있고, 막대 자석을 손으로 코일 안에 꽂아 넣는 것 뿐이었다. 패러데이가 사용한 막대자석과 코일은 오늘 날 런던의 왕립과학연구소에 다른 귀중한 유물과 함께 진열되어 있다. 처음 패러데이는 자석이 코일 안에 정지해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했으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과 자석을 끌어당길때 다시 역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연속 전류 기계인 발전기를 발명했다. <王>